A.c.I.-구문에서의 대명사 분포에 관한 연구*

김연찬(서원대)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김연찬(2003)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 A.c.I.-구문에서 부정형동사가 수동태로 나타나는 경우와, 다른 유사한 구문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인칭대명사가 아닌 재귀대명사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의 같은 자리에 아무런 의미차이 없이 상보관계가 있는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들 —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글은 김연찬(2003)의 계속으로서 '독일어의 A.c.I.-구조분석 2'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전 글에서 가정되었던 생각의 일부가 바뀌었으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연찬(2003)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먼저 이런 구문의 대명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Reis(1976)이다. 여기에 Grewendorf(1982)가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어 신수송(1988)이 새로운 설명을 시도했다. 그들에 의하면, A.c.I.-구문의 부정형동사가 수동태나 행위격동사(ergatives Verb)로 된 문장에서는, 예문 (1)에서처럼 재귀대명사만 허용되고 인칭대명사는 나타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일한 구조를 하면서도 대명사의 분포에 있어서는 완전히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는 다음 예문(2)도 같이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1]:

(1) a. Die BRD$_i$ sieht sich$_i$/*sie$_i$ von der DDR betrogen.
b. Hans$_i$ fühlt die Freundin von sich$_i$/*ihm$_i$ weggezogen.

---

* 이 논문은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1) 이 글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예문은 Reis(1976)와 Grewendorf(1982)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겠다. 그러나 몇몇 사전에서 인용한 문장들은 따로 출처를 밝히겠다.

c. Hans$_i$ liess sich$_i$/*ihm$_i$ die Suppe schmecken.

(2) a. Peter$_i$ sieht Hans von *sich$_i$/ihm$_i$ betrogen.

b. Peter$_i$ hört das Konzert von *sich$_i$/ihm$_i$ gespielt.

특히 (1b)와 (2)의 문장들은 모두 완전한 동일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대명사는 각기 다르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통사·의미적인 입장에서든, 아니면 화용론적인 언어사용상의 입장에서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같은 문장구조이면서도 나타나는 대명사는 각기 다른 아래 문장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a. Hans$_i$ sieht/lässt Maria auf *sich$_i$/ihn$_i$ hoffen.

b. Hans$_i$ fühlt die Decke auf sich$_i$/*ihn$_i$ fallen.

(4) a. Hans$_i$ sieht die Leute um *sich$_i$/ihn$_i$ trauern.

b. Hans$_i$ lässt Maria zu sich$_i$/*ihm$_i$ kommen.

마지막으로, Reis(1976)와 Grewendorf(1982)에 의하면,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를 모두 허용하는 예들이 있다. 상호 배타적인 상보관계에 있는 이 두 대명사를 모두 다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예들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5) a.. Hans$_i$ hört Fritz für sich$_i$/ihn$_i$ stimmen.

b. Der Chef$_i$ lässt die Leute für sich$_i$/ihn$_i$ arbeiten.

상보관계에 있는 어떤 두 표현이, 의미변화 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능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문제는 김연찬(2003c)에서 시도하겠다. A.c.I.-구문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A.c.I.-구문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이다. 이 기본 구조에 관한 전제는, 'A.c.I.-구문은 내포된 하나의 문장이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인 Eisenberg(1988: 377ff)를 근거로 하여 위에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2)]

1.2. 인칭대명사의 분포

먼저 Reis(1976)와 Grewendorf(1982)에 나타나는 예문을 이은철(1991)은 대명사들이 나타나는 문장들의 특성에 따라 다섯 부류로 나누고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부류가 되겠다.[3] 다만 Eisenberg(1988)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분석에 따라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가 어떻게 설명되는 지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인칭대명사만 나타나는 환경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내포문의 전치사구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인칭대명사가 나타나는 경우와, 내포문안에서 부정형동사의 4격 또는 3격 목적어로서 인칭대명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1. 부정형동사의 목적어로 인칭대명사가 쓰인 A.c.I.-구문

이런 예들은 부정형동사가 소위 말하는 타동사로서 4격 또는 3격 목적어를 요구하는 문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6) a. Hans$_i$ lässt Fritz *sich$_i$/ihn$_i$ töten.
b. Hans$_i$ lässt Fritz *sich$_i$/ihm$_i$ helfen.
c. Hans$_i$ lässt/sieht die Leute *sich$_i$/ihm$_i$ Schnaps besor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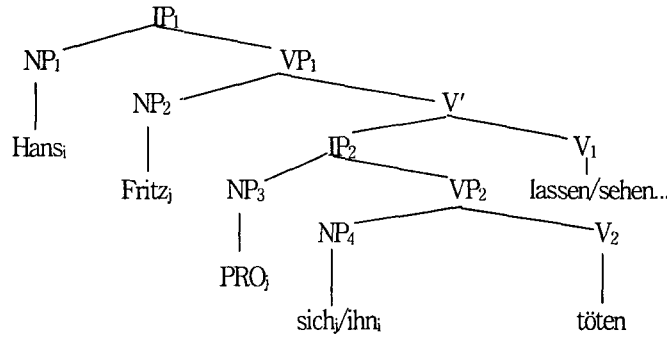
위 예문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는 모두 전체 문장의 주어인 'Hans'와 공지시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체 문장의 의미는 'Hans는 누구/무엇이 Hans 자신을 어떻게 하도록 하다/느끼다/보다'이다. 반면에 만약 이 문장에서 인칭대명사가 아닌 재귀대명사가 나타난다면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진다: (6a)는 Fritz가 자살하는 경우이며, (6b)는 Fritz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고, (6c)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마실 술을 구해와야 한다.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은 Eisenberg에 제시한 모델을 빌리면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먼저 (6a)의 분석도는 아래와 같다[4]:

---

2) A.c.I.-구문의 기본 구조에 관한 Eisenberg(1988: 377ff)의 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나올 김연찬(2003b)을 참조.

3) 다섯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김연찬(2003c)에서 다시 다루겠다.

(6′) a.



이 분석도에서 NP_2-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Fritz는 V_1-lassen/sehen/hören 동사 등의 목적어로서 4격(구조격)을 받는다. 내포문인 IP_2의 주어자리인 NP_3는, 상위문의 목적어인 NP_2에 의해 통제되는 PRO가 차지하여, NP_2의 표현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NP_4는 V_2로부터 목적격을 부여받으며, IP_2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의 밖에 위치하고 있는 상위문의 주어 NP_1과 공지시관계가 있을 때에도 재귀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로만 나타난다. 만약 NP_4에 인칭대명사가 아닌 재귀대명사가 왔다면, 이때에는 NP_4는 자신을 묶고있는 문장단위인 IP_2의 주어 NP_3 (PRO_j)와 공지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때는 '작은 문장'인 IP_2가 결국 'Fritz tötet sich'를 뜻하게 된다.[5] 이런 예는 'Der König lässt den Dieneri sichi Schnaps besorgen.' 같은 문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분석과 설명은 위의 문장 모두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다음 문장들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 Hansi bittet Mariaj, PROj sichj zu waschen..
- Hansi überredet Mariaj, PROj ihni zu waschen.n.

이와 달리 인칭대명사가 전치사구안에 나타나는 예문들은 어떻게 분석되는지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

4) 이 분석도는 아주 대략적인 것이다. 원래는 CP나 INFL등이 모두 있어야 되지만, 언제나 완전한 분석도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여기에서 문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한 PRO는 Chomsky 언어학에서 정의된 'PRO'나 'pro'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귀대명사의 경계인 '문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의 '주어'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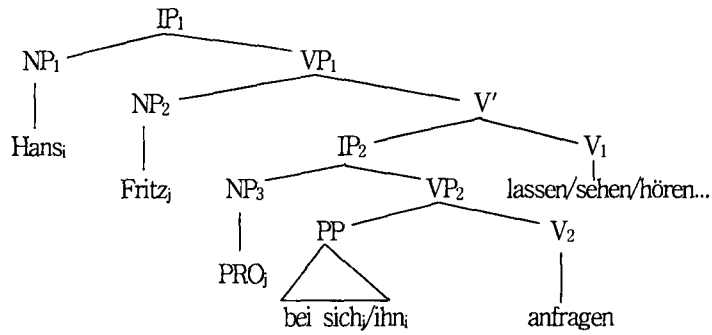
2.2. 전치사구안에 인칭대명사가 쓰인 A.c.I.-구문

부정형동사의 보족어가 전치사구로 되어 있는 문장이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보족어와 부가어의 구분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7) a. Der Gefangene$_i$ sieht/lässt den Polizisten auf *sich$_i$/ihn$_i$ achten.
b. Hans$_i$ hört/lässt den Professor mit *sich$_i$/ihm$_i$ sprechen.
c. Hans$_i$ sieht/lässt Fritz gegen *sich$_i$/ihn$_i$ stimmen.
d. Hans$_i$ hört/lässt Fritz bei *sich$_i$/ihm$_i$ anfragen.
e. Hans$_i$ sieht/hört/lässt die Schwester nach *sich$_i$/ihm$_i$ rufen.
f. Hans$_i$ sieht/lässt den Trainer auf *sich$_i$/ihn$_i$ blicken/hoffen.
g. Peter$_i$ sieht Hans von *sich$_i$/ihm$_i$ betrogen.
h. Peter$_i$ hört das Konzert von *sich$_i$/ihm$_i$ gespielt.

위 (7a-g) 문장들을 (6)의 문장들과 비교하면, 내포문을 이루고 있는 부정형동사에 딸린 전치사구안에 재귀대명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석도는, (6'a)에서 NP_4로 나타난 V_2의 보족어가 PP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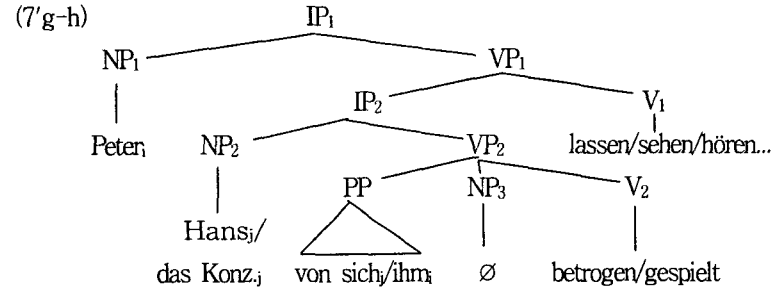
(7')



따라서 PP안에는 있는, NP_1과 공지시관계에 있는 표현은, IP_2에 의해 묶여 있어서, 재귀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로만 쓰일 수 있다. 또한 PP안의 재귀대명사는 IP_2의 주어 NP_3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NP_3의 PRO_j는 NP_2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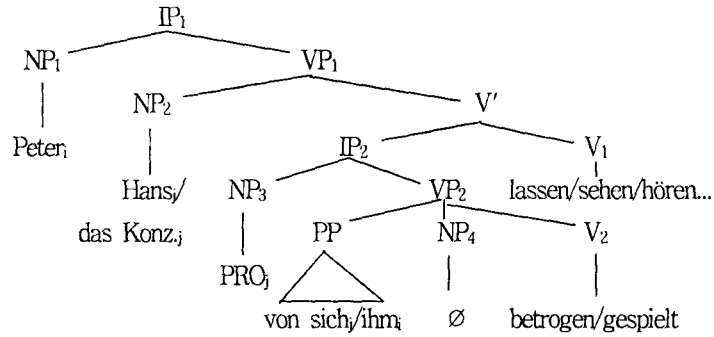
통제되기 때문에 결국 PP안의 재귀대명사는 NP_2의 명사와 공지시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설명은 (6)이나 (7a-f)의 모든 문장에 비슷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부정형동사가 과거분사꼴을 하고 있는 (7g-h)의 두 문장을 살펴보자. 이 문장에서 행위자를 표시하는 'von + 3격명사'에서 인칭대명사가 3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Reis, Grewendorf, Shin등은 모두 비슷한 설명을 하고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 설명에 의하면, IP_2의 주어자리인 NP_2는 V_2의 목적어인 NP_3('Hans' 혹은 'das Konzert')가 격을 받기 위해 이동해 간 자리이다. 이제 IP_2는 주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한 '문장단위'가 되어 재귀대명사화의 경계가 된다. 따라서 IP_2 밖의 어떤 표현과 공지시관계에 있는 IP_2 안의 대명사는 인칭대명사이어야 한다. 만약 재귀대명사가 쓰였다면 그것의 선행사는 당연히 IP_2 안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이런 경우의 내포문은, Hans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고,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연주회는 (지휘자 없이) 자기들끼리 저절로 연주가 되는 상황을 표현한다. 이 문장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똑같은 구조를 한 문장들이 3절에서는 각기 달리 분석되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대명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인칭대명사만 허용되나 뒤에서 보면, 같은 구조의 다른 문장에서는 또 재귀대명사만 허용됨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런 차이를 이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분석법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 보이는 분석도에서 IP_2의 주어자리인 NP_3는, 상위문의 목적어인 NP_2에 의해 묶여있는 PRO가 차지하여, 의미상 NP_2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어로서의 NP_3는 빈자리가 아니어서 IP_2는 완전한 문장이 되어 재귀대명사화를 막는 경계가 된다. 따라서 NP_1과 공지시관계가 있는 PP안의 표현은 인칭대명사로만 나타난다.

(7″)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은 (인칭)대명사의 쓰임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보여주지 않고, 통사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아주 분명한 설명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재귀대명사들의 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아주 흡사한 문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대명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재귀대명사의 분포

재귀대명사만 나타나는 환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sich+von-3격+원형동사+lassen'의 꼴을 한 수동태와 'sich+행위격동사+lassen'으로 된 문장과, 전치사구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재귀대명사가 나타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형동사가 과거분사의 꼴을 하고 전치사 없이 쓰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von-3격 + 원형동사'와 행위격동사로 된 A.c.I.-구문

이런 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정형동사가 'von-3격+원형동사'의 모양을 한 수동태 문장과 행위격동사(ergatives Verb)로 된 문장들이다:

(8) a. Hansi lässt sichi/*ihmi von Fritz den Vertrag geben.
b. Hansi lässt sichi/*ihmi von Fritz helfen.
c. Hansi lässt sichi/*ihmi das Buch bringen.

d. Hans$_i$ lässt sich$_i$/*ihm$_i$ das Bürschchen kommen.

e. Hans$_i$ lässt sich$_i$/*ihm$_i$ den Stein auf den Kopf fal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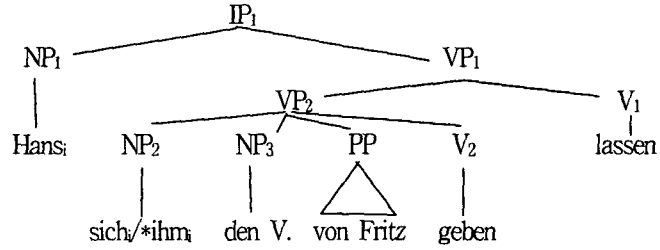
f. Hans$_i$ lässt sich$_i$/*ihm$_i$ die Sache teuer zu stehen kommen.

g. Hans$_i$ liess sich$_i$/*ihm$_i$ die Suppe schmecken.

h. Hans$_i$ liess sich$_i$/*ihm$_i$ eine solche Behandlung nicht gefallen.

Grewendorf나 Shin은 모두 (8a-b) 문장들은 수동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쨌든 크게 보아 (6)이나 (7)의 문장들과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 (8)의 문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Grewendorf는 (8a-b)에 대해서는 — 아마도 (8c)에 대해서도 역시 — VP-매듭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 내포문이 재귀대명사를 막는 CP나 IP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VP로 이루어 졌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내포문에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전체문장의 주어인 NP_1과 공지시관계에 있는 재귀대명사가 허용된다. 이런 가정이 가능한 이유는, A.c.I-구문인 (6)이나 (7)과는 달리, (8a-c)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기능을 하는 상위동사의 4격 목적어가 없어 문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6]:

(8′)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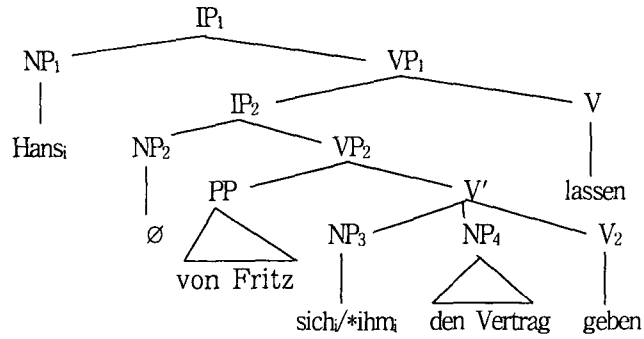


이런 분석은, (6)과 (7) 그리고 (8)의 나머지 다른 문장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의 상실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됨에 따라 Shin은 이를 거부한다. 대신 다른 모든 문장에 대해서와 똑같이 내포문도 언제나 CP 혹은 IP로

6) 사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장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A.c.I.-구문이 아니다. 상위동사의 4격 목적어가 내포문의 주어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A.c.I.-구문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8a-c)의 4격 목적어는 모두 내포문을 이루는 부정형동사의 4격 목적어임에 주의해야한다.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신수송(1988: 397)의 대략적인 분석도는 아래와 같다:

(8″)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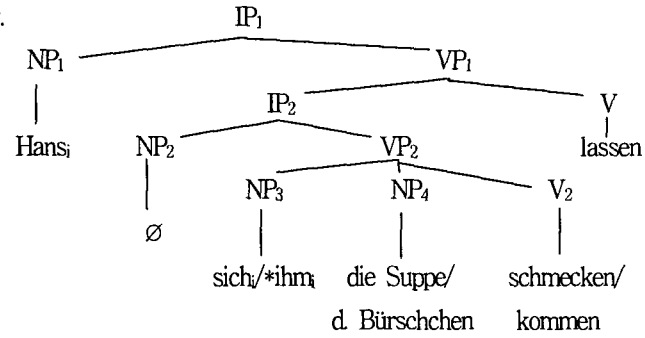
이 분석도에는 IP_2의 주어인 NP_2가 비어있어서 IP_2는 재귀대명사화를 막는 경계로서의 '문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IP_2 밖에 있는 표현과 공지시관계에 있는 IP_2 안의 대명사는 재귀대명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c.I.-구문이 아닌 위의 예문들과는 달리, 나머지 (8d-h)의 문장들은 모두 부정형동사의 주어기능을 하는 4격 목적어가 있는 전형적인 A.c.I.-구문이어서 이런 설명이 불가능하다:

(8′) d. Hansi lässt [IP das Bürschchen [VP sichi/*ihmi kommen]]
e. Hansi lässt [IP die Sache [VP sichi/*ihmi teuer zu stehen kommen]]
f. Hansi lässt [IP den Stein [VP sichi/*ihmi auf den Kopf fallen]]
g. Hansi ließ [IP die Suppe [VP sichi/*ihmi schmecken]]
h. Hansi ließ [IP eine solche Behandlung [VP sichi/*ihmi nicht gefallen]]

이 부정형동사가 이루는 IP-범주는, 그 안의 표현이 재귀대명사로 나타나는 것을 막게되어, 인칭대명사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런 예측과는 반대로 재귀대명사만 허용된다. 통사적으로 보면, 재귀대명사는 부정형동사가 중심이 된 내포문에서 자신의 '주어'인 4격 명사구를 받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위 문장의 내포문들이 각각 'die Suppe schmeckt sich' 혹은 'eine solche Behandlung gefällt sich'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문장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통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g-h)의 내포문은 실은 이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수송(1988)은 아래와 같은 분석도를, 수동태나 행위격동사로 된 문장 분석을 위한 기저구조로 제시한다[7]:

(8″) g.



이 분석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첫째, IP_2의 주어가 없어 그 안에 재귀대명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할지라도, IP_2 안의 재귀대명사는 일차적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선행사를 찾아야만 한다. 이때에는 NP_4가 강력한 후보이다. 가까이에 강력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귀대명사가 IP '밖'의 표현과 관계를 맺는 이유를 통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둘째, (8d)도 역시 (8″g)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8g-h)의 'schmecken/gefallen'과는 달리, 'kommen'은 3격 보족어를 요구하지 않는다(*Er kommt dir). 'Der König liess sich seinen General rufen' 도 마찬가지이다. 'rufen' 동사는 3격과 4격을 동시에 요구하지 않는다. 위 분석에서는 3격 대명사가 부정형동사 'kommen'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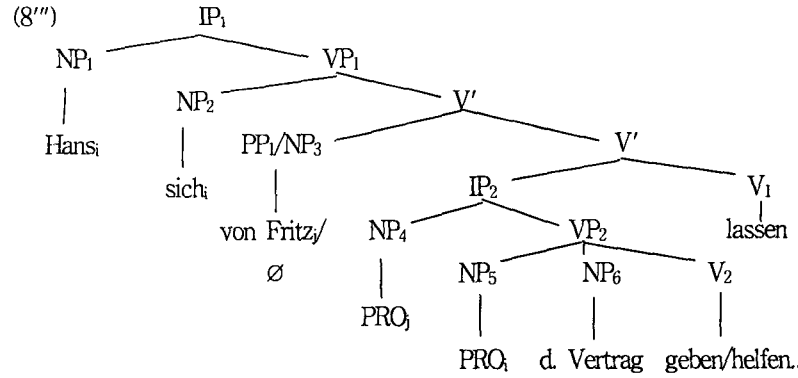
그런데 (8) 문장을 보면 다른 A.c.I.-구조와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6)에서는 부

---

7) 물론 이 문장들에 대해서도 Grewendorf는 VP-매듭을 가정하나 여기에서는 Shin의 분석만을 소개하겠다. 여기에서 각각의 명사구에 3격 혹은 4격을 어떻게 적절히 줄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하겠다.

8) 물론 (8e)의 부정형동사는 (8d)와 동일하지만 그 쓰임은 완전히 달라 이 둘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Die Sache kommt ihm teuer zu stehen.' 혹은 'Ihr kommt plötzlich die Idee.'들은 아주 좋은 문장으로서 이때의 'kommen' 동사는 보족어로서 3격 목적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8f)같은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Der Stein fällt ihm auf den Kopf/Der Fusel steigt ihm in den Ko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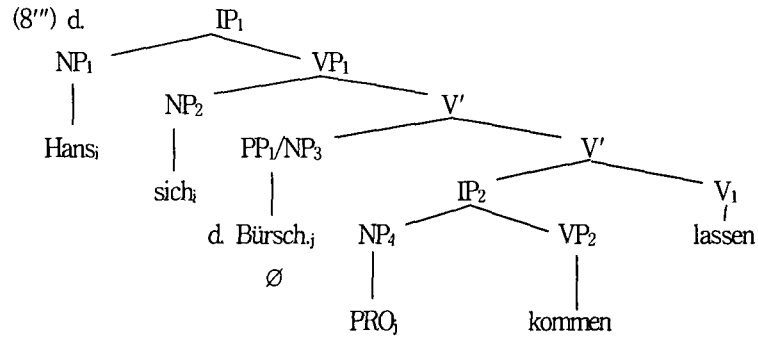
정형동사의 '주어'기능을 하는 상위동사(lassen/sehen/hören/fühlen...)의 4격 목적어가 어떤 대명사보다 앞서 이런 상위동사의 바로 뒤에 위치한다(Vgl. Hans$_i$ lässt Fritz *sich$_i$/ihn$_i$ töten). 이와 달리 (8)에서는 부정형동사의 '주어'기능을 하는 4격 목적어보다 3격의 재귀대명사가 더 앞에 나타나, 이 3격 재귀대명사가 상위동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추측과, lassen-동사가 본동사로서 4격 목적어 외에 3격 목적어를 하나 더 취하여 3가 동사로 쓰이는 예를 근거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도를 (8)의 기본구조로 제안한다:



이 분석도를 기본으로 (8)의 문장들을 설명해보자. (8a-c)에는 부정형동사의 주어기능을 하는 4격 목적어가 없다. NP_2는 lassen-동사로부터 내재격인 3격을 받고, 주어 NP_1과 공지시관계에 있으므로 재귀대명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내재격을 갖고있는 표현은 내포문의 3격 명사구인 NP_5를 통제한다. 반면에 앞에서 보았듯이 구조격을 받는 NP_3는 물론이고, 'von-전치사구'인 PP_1도 내포문의 주어인 NP_4를 통제하여 해석하게된다.[9] 이런 설명은 (8d-h)의 A.c.I.-구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NP_2는 내재격을 받는 재귀대명사가 차지한다. 이 내재격의 재귀대명사는 항상 내포문의 3격 명사구가 차지할 자리의 PRO를 통제하여 의미해석을 한다. 이어서 NP_3에는 das Bürschchen/die Sache/den Stein/die Suppe/eine

9) 이런 예는 'Ich will von dir, fleißiger zu lernen'이라든지, 'Ich verlange von dir, das schnell zu machen' 같은 데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solche Behandlung 같은 명사들이 상위동사인 lassen으로부터 구조적으로 4격을 받는다. 이 4격의 목적어가 내포문의 주어인 NP_4를 통제하고 의미해석을 하게된다. 이런 방식은 내포문의 구조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경우이다. 만약 내포문을 행위격동사가 취하는 구조로 분석한다면, NP_3과 NP_4는 모두 빈자리가 되고, NP_5에는 NP_2와 공지시관계에 있는 PRO가 오며 또 NP_6의 자리에 이 표현들이 나타나난다. 이때에는 이 표현들에 4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한다.[10]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행위격동사들이 구조적으로 4격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NP_3에 이 표현들이 나타나 상위동사로부터 구조적으로 격을 받아 목적어가 되어 NP_6의 PRO를 통제하며, NP_2의 재귀대명사는 NP_5의 PRO를 통제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내포문의 주어 NP_4는 빈자리가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8d)의 분석도 다음과 같다:



3.2. 전치사구안에 재귀대명사가 쓰인 A.c.I.-구문

이 경우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어려운 예들이다. Reis, Grewendorf 등에서 인용된 예문들을 모두 모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인용되는 예문들이 많은 이유는 비슷한 구조의 다른 문장들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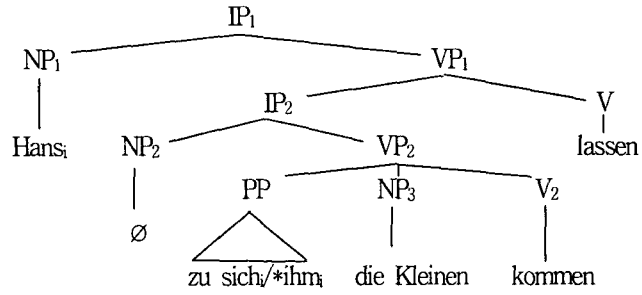
10) 신수송(1988)이 주장하는 θ-지배 사슬(θ-government chain)에 의한 방식도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부정형동사의 주어에 적절하게 4격을 줄 수만 있다면 어떤 분석방법을 취하든 문장(8)은 모두 설명될 수 있다.

(9) a. Der Gefangene$_i$ lässt auf sich$_i$/*ihn$_i$ achten.
b. Hans$_i$ hört/lässt mit sich$_i$/*ihm$_i$ sprechen.
c. Hans$_i$ lässt bei sich$_i$/*ihm$_i$ anfragen.
d. Hans$_i$ hört/lässt nach sich$_i$/*ihm$_i$ rufen.
e. Hans$_i$ lässt auf sich$_i$/*ihn$_i$ blicken./eingehen.
f. Hans$_i$ fühlt die Decke auf sich$_i$/*ihn$_i$ fallen.
g. Hans$_i$ lässt Maria bei sich$_i$/??ihm$_i$ essen.
h. Der Polizist$_i$ sieht den Hund neben sich$_i$/*ihm$_i$ ersticken.
i. Der Gärtner$_i$ lässt die Pflanzen für sich$_i$/*ihn$_i$ wachsen.
j. Die Mutter$_i$ lässt die Suppe für sich$_i$/*sie$_i$ kochen.
k. Hans$_i$ lässt keinen neben sich$_i$/*ihm gelten.
l. Hans$_i$ liess die Wut in sich$_i$/*ihm$_i$ nicht hochkommen.
m. Der Herr$_i$ liess die Kleinen zu sich$_i$/*ihm$_i$ kommen.

(9a-e) 문장들은 내포문의 주어가 되는 4격 명사구가 없어서 A.c.I.-구문이 아니다. 따라서 Grewendorf, Shin, 혹은 위에서 제시된 새로운 분석법 가운데에 그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이 문장들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포문에 주어가 없어 내포문이 재귀대명사를 막는 완전한 문장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4격 목적어가 있는 (9f-m)까지의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모두 (7)의 문장들과 구조가 동일하다: 4격 목적어가 나오고 그 후를 이어 전치사구와 함께 부정형동사가 따라온다. 이처럼 동일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전치사구 안에 오직 인칭대명사만 허용하는 (7)과는 완전히 반대로, (9f-m)들의 문장에서는 인칭대명사는 배제되고 오직 재귀대명사만 허용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규칙으로서의 문법은, 통사규칙들은 이를 어떻게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로 보아서는 적어도 (7)과 (9)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 그것이 인칭대명사이든 재귀대명사이든 — (7)과 (9)에 있어서 동일하게 분포해야만 한다는 판단이다. 논의의 편리를 위해 (9m)부터 먼저 거꾸로 이야기해보자. 이 문장은, 내포문의 주어자리를 4격 목적어인 'die Kleinen'이 차지하는, 전통적인 A.c.I.-구문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포문은 주어자리가 차있는 완전한 문장이 되어, 그 안의 어떤 표현이 그 밖의 선행사를 받아 재귀대명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Grewendorf는, 위에서 보았듯이, 이런 경우 내포문에 CP나 IP 대신 VP-매듭을 가정한다. 반면에 신(1988)은, (8″g)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주어자리가 비어있어 '문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격동사 구조를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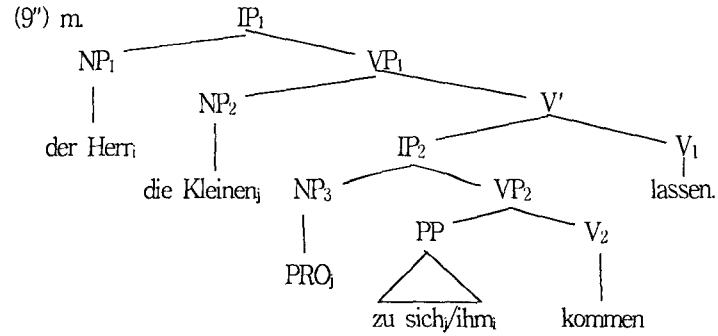
(9′) s.



그러나 이런 설명과 분석은, 재귀대명사와 가까이에 있고, 같은 IP 안에 있어서 선행사로서 강력한 후보인 'Kleinen'을 놓아두고, 멀리 IP 밖에서 그 선행사를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8g)에서 언급된 문제이다. 또 NP_3의 'die Kleinen'은 분석도에서 IP_2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재귀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die Kleinen kommen zu sich' 같은 문장에서 분명해진다. 이 문장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각자 서로에게 다가가거나, 또 아이들이 정신을 차려 제 정신이 되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격동사를 위한 이런 분석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아니면 그저 '이 문장은 중의적이다'. 즉 '상황에 따라서 'Hans'와 'die Kleinen'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문법은 규칙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며 상황은 언어사용에 따라 언제나 무한히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무원칙적인 설명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분명해진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Grewendorf와는 달리 (9m)에서 'sich'가 아니라 'Hans'가 맞다고 하는 독일인들이 있다는 점이다.[11] 다시 말해 선행사가 'Hans'일 때는 인칭대명사 'ihm'이 옳고, 재귀대명사

11) 여론조사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본교의 전·현직 독일인 강사 두 명의 의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답에 응한 숫자가 아니라, 견해를 달리하는 독일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Grewendorf의 판단이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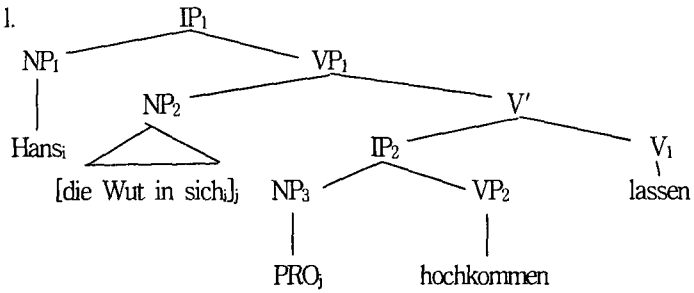
'sich'는 그 선행사로 내포문의 주어인 'die Kleinen'을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해석이 올바르다면 위의 설명은 재고되어야만 하고,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한다. 그럼 이 글에서 제안된 분석도는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앞 (6'a)나 (7')에서 제시된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이 분석도에서는 앞에서 본 문제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또 통사적인 입장에서 보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sich'가 'die Kleinen'이 아닌 'der Herr'로 해석될 수도 있는 가이다. 이것은 '규칙으로서의 문법' 혹은 '통사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언어대중들은 '왜' 'sich'가 'die Kleine'이 아닌 'der Herr'를 받는 해석을 할까? 그것은 '시키는' 주어 'der Herr'의 '힘/영향력'때문인지 모른다. 'Inge sieht die Kleinen zu sich kommen'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sich'가 'die Kleinen'을 받는 해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ihm'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sich'가 쓰이는 것은 잘못된 쓰임이며, 이렇게 잘못 쓰이는 이유는 의미와 언어사용상의 차원에서 언어대중들이 매번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해석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추가질문을 할 것이다. 이 설명은 (g)문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g)에서도 Maria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면 'bei sich'이지만, 'Peter네 집에서' 식사하면 'bei ihm'이어야만 한다. 만약 Maria가 Peter네 집에서 먹을 때도 'bei sich'라면, Maria가 정말 '자기 집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표현될까? 똑같은 설명이 (f)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ihn'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쓰임이며, 'sich'는 바르지 못한 쓰임이다. 그렇지만 그 바르지 못한

'sich'가 바른 'ihn'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는, 'sich'를 쓰면 'ihn'을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할 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sich'가 'die Decke'를 가리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다(*Die Decke fällt auf sich). 따라서 실제로는 'Hans'외에는 가리킬 것이 없어 이 문장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상, 통사규칙상 바른 선택은 'sich'가 아니라 'ihn'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한다. 다만 언어대중들이 이 규칙을 무시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뿐이다. 이 차이를 무시하는 것,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며, 이런 잘못된 언어사용은 바로 잡아야만 한다. 이와 비슷한 설명은 (l)에도 적용된다: 문법이나 통사규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Hans'를 선행사로 하는 내포문의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ihm'이어야 한다. 그러나 '*Die Wut kommt in sich hoch'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ich'는 IP 안에서 자신의 선행사 찾기를 포기하고 IP 밖의 'Hans'와 관계를 맺어 해석하게된다. 그런데 (f), (g), (m) 때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대신 **'일반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문장에서 쓰인 대명사의 분포를 다르게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 sich'가 내포문 안에서 부정형동사 'hochkommen'을 수식하는 부사구가 아니라 'Wut'를 꾸미는 형용사구로 분석하면 이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9″) l.



이 분석에 의하면, IP_1의 주어는 목적어 NP_2 안의 대명사를 재귀대명사로 묶어준다. 반면에 IP_2의 주어 NP_3는 NP_2 전체에 묶여있다. 이런 설명에 의하면, 서로 배타적인 두 대명사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대명사가 나타나는 문장의 분석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f), (g), (l), 또는 (m)과 같은 분석에서는, 'in ihm'은 동사 'hochkommen'을 수식하는 부사구이며,

위의 (9"l)과 같은 분석에서는 'in sich'는 명사 'die Wut'를 꾸미는 형용사구가 되어, 이 문장은 의미 차이가 생기는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솟아올랐'고, 후자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있던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이때의 '중의적'이라 함은 앞서 (9m)에서 재귀대명사가 이것도 가리키고, 저것도 가리킬 수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중의적인 것과는 다르다: (l)은 심층에서의 통사구조는 다른데, 평면으로 나타나는 표층구조가 우연히 같아짐에 따라 생기는 것인 반면, (m)의 경우는 언어사용자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씀에 따라 생기는 무원칙한 것이다. (l)과 같이 이중으로 분석할 수 있음에 따라 생기는 중의적인 해석은 문장 (h)와 (k)에서도 모두 나타난다: 'neben-전치사구'가 내포문의 동사구 VP_2 안에 나타나 부정형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기능하면 인칭대명사 'ihm'이 바른 쓰임이다. 이때는 '개가 경찰관 옆에서 질식사하고, Hans가 자기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는다'의 뜻이다. 그러나 4격 목적어를 꾸미는 형용사구로서 상위문의 목적어 NP_2 안에 나타난다면 재귀대명사 'sich'가 쓰여야한다. 이런 분석은, '..... 옆에 있던 .....'의 뜻을 보여준다. 이 'neben-전치사구'가 내포문의 동사구 VP_2 안에 나타나 부정형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칭대명사 'ihm'이 아닌 재귀대명사 'sich'가 쓰여, 상위문의 주어 NP_1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언어사용자가 '*Peter gilt neben sich/*der Hund erstickt neben sich'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1차적 해석을 포기하고, 2차적으로 내포문 IP_2 밖에 있는 NP_1과 'sich'를 일치시키는 잘못된 유추의 결과이다. 이런 언어사용자들의 잘못된 유추에 의한,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까지 규칙으로서의 문법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법을 이루는 통사규칙은 언제나 명확해야 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언어사용자의 문제이다. 이는 마치 운동경기에서와 같다: 경기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경기 중에 이 규칙이 지켜지는 지를 감시하는 심판관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심판관이 규칙을 엄격하게 고집한다면 경기는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경기의 흐름에 무리가 없는 한 약간의 위반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엄격한 규칙적용이 오히려 전체 경기 흐름상 파울을 한 쪽에 유리하게 된다면, 규칙의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다 보니 심판판정에 이의도 있고, 같은/비슷한 상황에 대해 심판들의 판정이 다를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이 규칙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언어대중들이다. 무한한 언어사용의 경우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어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 (i)와 (j)도 마찬가지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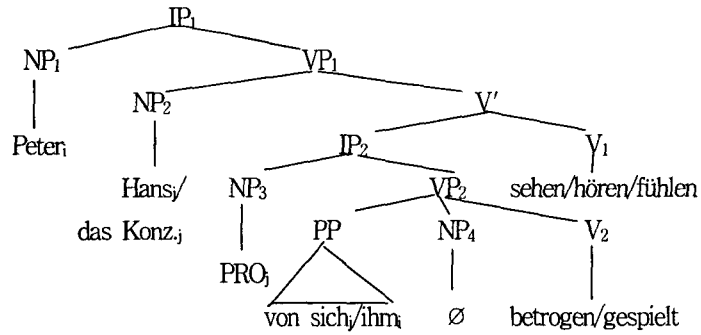
3.3. 부정형동사가 과거분사의 꼴을 한 예

이제 마지막으로 A.c.I.-구문에서 부정형동사가 과거분사의 꼴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문장들은 (7g-h)과 똑같은 구조인데, 이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자. 편의를 위해 (7g-h)를 다시 한번 여기에 옮겨본다:

(7) g. Peter$_i$ sieht Hans von *sich$_i$/ihm$_i$ betrogen.
h. Peter$_i$ hört das Konzert von *sich$_i$/ihm$_i$ gespielt.

(10) a. Die DDR$_i$ sieht sich$_i$/*sie$_i$ von der DDR betrogen.
b. Hans$_i$ fühlt die Freundin von sich$_i$/*ihm$_i$ weggezogen.

(10′)



(7)과 (10)은 완전히 동일한 문장구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문법규칙은 이 둘을 하나로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10′)에 의하면, (10a)는 잘 설명된다: NP_1과 공지시관계에 있는 대명사가 NP_2에 나타나면 그 때에는 당연히 재귀대명사이다. 그런데 (7)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b)에는 인칭대명사가 아닌 재귀대명사가 쓰인다. 통사규칙이나 규칙으로서의 문법 입장에서 보면, (7)과 (10)의 대명사분포는 동일해야한다. 결국 이 문장도 'ihm'이 바른 표현이며 'sich'는 잘못 쓰인 예이다. 그럼 왜 이런 잘못 쓰임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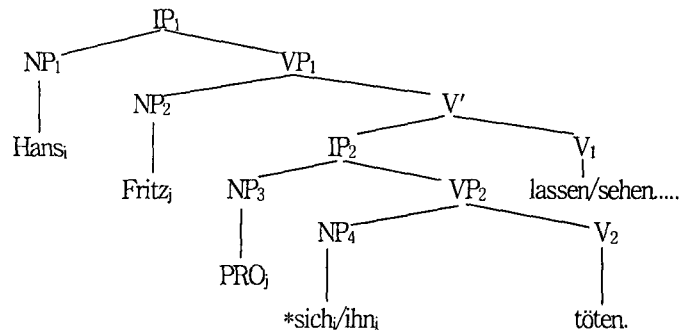
12) 'kochen'은 자동사로 간주한다. (j)에서 'kochen'이 타동사라면, 내포문의 주어가 없어 이 문장은 A.c.I.-구문이 될 수 없다. 특히 'für sich'가 굳은 표현으로 쓰이면, 'sich'가 4격 목적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사용자들의 잘못이며, 이런 잘못된 쓰임은 언어사용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은 규칙을 다루는 문법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Hans fühlt die Freundin von sich betrogen.' 같은 문장에서 '여자친구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sich'는 바로 앞의 명사 'die Freundin'을 선행사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7)과 (10)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모든 문장들을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고, 따라서 일관성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A.c.I.-구문에서 전체문장의 주어와 공지시관계에 있는 대명사가 내포문에 나타날 때, 상보관계가 있는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또 이 분포상의 차이를 통사적으로 어떻게 규칙적으로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먼저 분석의 기본 모형으로 아래 (1)을 가정하였다:

(1)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면, 먼저 (2)에서 인칭대명사가 바르게 쓰였음을, 문법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설명과 분석이 타당하다면, 이와 동일한 구조를 한 (3) 문장들도 역시 (2)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가 쓰여야 한다:

(2) a. Hansi lässt Fritz *sichi/ihni töten.

b. Der Gefangenei sieht/lässt den Polizisten auf *sichi/ihni achten.

c. Peter$_i$ sieht Hans von *sich$_i$/ihm$_i$ betrogen.

(3) a. Hans$_i$ lässt Maria zu sich$_i$/*ihm$_i$ kommen.

b. Hans$_i$ fühlt die Freundin von sich$_i$/*ihm$_i$ weggezogen.

이런 기대와 달리, 재귀대명사가 쓰인 것은, 의미해석상 다른 가능성이 없고, 인칭대명사를 씀으로 생기는 오해를 막기 위한 언어사용자들의 잘못된 유추에 의한, 잘못된 쓰임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통사규칙 혹은 문법에 의한 일관성있는 설명을 막는, 언어사용상의 문제로서, 이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문법이나 통사론의 영역이 아니다. (3)과 같은 잘못된 쓰임이 왜 가능한지는 또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신수송(1988): 현대독어학, 교육과학사: 서울

이은철(1991): 독일어 A.c.I.-구조에 나타나는 대명사연구. 충남대.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 Dordrecht

Duden(1984): die Grammatik. Dudenverlag

Eisenberg,P.(1986):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Metzler

Grewendorf, G.(1982): Reflexivierung in Deutschen A.c.I.-Konstruktionen — kein Transformationsgrammatisches Dilemma mehr. Mimeo, Berlin

Helbig, G./Buscha, J.(1987):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Hentschel,E./Weydt,H.(1990):Handbuch der deutschen Grammatik.

Reis, M.(1976): "Reflexivierung in Deutschen A.c.I.- Konstruktionen. Ein Transformationsgrammatisches Dilemma" In: Papiere zur Linguistik 9, Tübingen.

Wells, L. D.(1993): Handbuch zur deutschen Grammatik. D.C.Heath and Company: Lexington, Massachusetts · Toronto

Zusammenfassung

Distribution von Pronomina in A.c.I.-Konstruktionen

Kim, Youn-Chan(Seowon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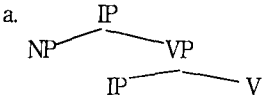
Personal- und Reflexivpronomen stehen in einer komplementären Beziehung zueinander. Die vorliegende Arbeit zeigt, welches von beiden Pronomen verschiedenen AcI-Konstruktionen jeweils richtig ist. Vor allem stelle ich hier die These auf, dass Grammatik in erster Linie ein Regelwerk ist und dass demzufolge Sätze mit gleicher Struktur immer einheitlich und konsistent mit denselben Regeln erklärt werden soll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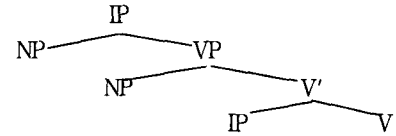
(1) a. Der Gefangene$_i$ lässt den Polizisten auf *sich$_i$/ihn$_i$ achten.
b. Hans$_i$ lässt Maria zu sich$_i$/*ihm$_i$ kommen.
(2) a. Peter$_i$ sieht Hans von *sich$_i$/ihm$_i$ betrogen.
b. Hans$_i$ fühlt die Freundin von sich$_i$/*ihm$_i$ weggezogen.

Bei diesen Beispielen liegt der Verteilungsunterschied der Pronomina nicht an Grammatikregeln sondern am individuellen Sprachgebrauch. Ferner wird hier darauf hingewiesen, dass die AcI-Verben mit Ausnahme des Verbs *lassen* als 3-wertige Verben so wie die Sätze in Beispiel (3) zu behandeln sind. D.h., die Struktur für AcI-Konstruktionen sieht so aus wie (4b), nicht wie (4a). Betrachten wir dies noch einmal an einem Beispiel:

(3) a. Ich sehe mich müde b. Ich fühle mich viel besser.

(4) a.





[검색어] 지각동사구문, 대명사, 수동문
A.c.I., Pronomina, Passiv

김연찬
361-74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번지
yckim@seowon.ac.kr